광주시 '녹색행동' 사업 시동

온실가스 감축 등 32개 신규 추진

광주시가 역점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광주 녹색행동(Gwangju Green Action)' 등 32개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중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개별 건물 온실가스 발생량을 조사하는 한편, 정부의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 및 기후변화대응기금 조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2일 '기후변화대응 추진기획단' 신규사업 보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후변화대응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광주녹색행동'은 탄소배출량이 큰 기업과 대학 및 대형 건물 등과 광주시가 협약을 체결, 시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행정·재정·기술을 지원하고, 다량 배출자들은 에너지 사용 감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올 하반기부터 시 산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하고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축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식경제부, 국회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 탄소거래소의 지역 유치에도 나설 방침이다.

시는 지난 4월 정부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협약 체결, 5차례에 걸쳐 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추진기획단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 24만6천t의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2015년 감축 목표 66만1천t의 37%를 달성한 바 있다. 또 전국 최초로 가정부문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으로 '탄소은행'을 개발하여 현재 2만5천여 세대가 가입했으며, 각 자치구별로 탄소은행 우수아파트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교부하는 등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염병 발생 씨가축 농장 내년부터 명단 공개 한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종우(씨소)·종돈(씨돼지)·종계(씨닭) 등 종축(씨가축) 농장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일부 개정해 이런 내용을 담기로 하고 입법 예고를 했다고 1일 밝혔다. 번식용 가축을 분양하는 농가의 전염병 발생 상황을 공개해 좀 더 안전하고 우수한 종을 번식시키자는 취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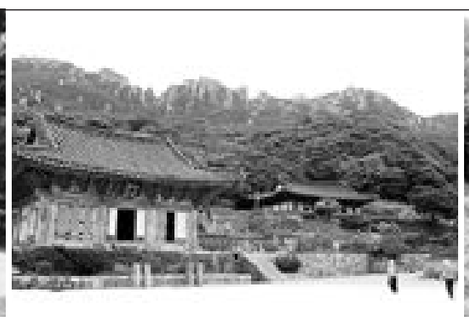
농식품부는 정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昨日만평

- 김종두

아직 그러고 있을때가 아닐텐데 …

담양 식영정.



해남 달마산 미황사.

담양 명옥헌 원림.

담양 식영정·명옥헌 원림·해남 미황사 명승 된다

문화재청은 담양 식영정(息影亭) 일원, 명옥헌(鳴玉軒) 원림(園林),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의 하나인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

식영정은 조선 명종 때 서하당(棲霞堂) 김성원이 지은 정자로, 송강(松江) 정철이 한시와 가사, 단가 등을 남겼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명옥헌 원림은 조선 중기 이정(以井) 오명주가 선친인 명곡(明谷) 오희도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정자를 지은 뒤 주변에 연못을 파고 적송 등을 심어 가꾼 정원이다.

미황사는 신라 경덕왕 8년(749년)에 창건된 절로, 서해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있다.

문화재청은 이밖에도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무주구천동 일사대(一士臺) 일원과 파회, 수심대(水心臺) 일원도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한 이견 등이 없으면 이들 6곳을 명승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최장 산악자전거대회 전남서 6~7일 개최

전국 최장 거리의 산악자전거 대회가 전남에서 열린다.

전남도는 '제1회 MTB 300 울트라 랠리'가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조계산, 백운산, 지리산 일원 300km 구간에서 열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남도가 임도와 자전거도로를 포함, 전국에서 가장 긴 거리인 300km를 38시간 이내에 완주하는 코스를 개발하면서 마련된 것이다.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과 백운산을 따라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선수와 동호인 및 가족 등 1천여명이 참가, 300km 풀코스와 150km 하프코스로 나눠 순위경쟁이 펼쳐지게 된다.

이번 대회는 6일 새벽 3시에 출발해 하프코스는 당일 저녁 8시까지, 그리고 풀코스는 다음날인 7일 오후 5시까지 완주하면 된다. /홍행기기자 redplane@

盧 前 대통령 발견 시각 또 달라져

경찰, 당초보다 6분 늦은 오전 6시51분으로 수정 발표

이 경호관 서거 경위 3차례 허위보고 … 오늘 현장검증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엉이바위 아래에서 발견된 시각 등 서거 당일 행적이 경찰발표 때마다 달라지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이노구 수사과장은 1일 수사중간 브리핑을 통해 "이 경호관이 노 전 대통령을 발견한 시각은 오전 6시51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지난달 27일 수사결과 발표 때 밝혔던 오전 6시45분보다 6분이나 늦은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29일에는 이 경호관이 6시45분에 노 전 대통령을 발견하고 6시47분에 신 모 경호관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노 전 대통령이 경호동에 인터폰으로 연락한 시각도 경찰의 당초 발표보다 10분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과장은 "사저 주변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노 전 대통령은 오전 5시35분께 '산책갈게요'라며 경호동에 인터폰을 했고, 이 경호관은 3분 뒤 사저 앞에서 기다렸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7일에는 노 전 대통령이 오전 5시44분에 사저 내 컴퓨터에 유서를 최종저장한 뒤 5시45분께 인터폰으로 경호동에 연락했고 47분에 산으로 출발했다고 경찰은 발표했다.

경찰이 수정한 시각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오전 5시26분에 유서를 작성해 1차 저장한 뒤 35분에 경호동에 인터폰으로 연락한 상태에서 다시 수정해 44분에 최종 저장했다는 말이 된다.

경찰은 또 지난달 24일에는 "사저 경비초소의 전경이 오전 6시20분께 부엉이 바위 정상에 노 전 대통령과 경호관이 서 있는 것을 봤다고 했다"고 밝혔다가 이날은 전경의 목격 시각을 6시10분께로 수정했다.

이처럼 노 전 대통령의 서거당일 행적에 관한 경찰의 수사내용이 발표 때마다 달라지면서 "과연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것이냐"는 의문과 더불어 부실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경호관은 서거당일 오후에 3차례나 서거경위에 대해 경호처에 허위보고를 했고 노 전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수색에 나섰던 신 모 경호관은 이 경호관의 진술이 허위임을 알고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부엉이바위에서 현장감식을 한 데 이어 2일 오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법의학 관계자, 경호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당일 이동경로를 따라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경찰이 1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했던 경남 김해 봉화산 부엉이바위에서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J프로젝트 삼호지구 금호산업 사업자 제외

법정 자본금 납입 못해 … 내년 상반기 착공 차질

전남도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개발 지구 가운데 삼호지구의 특수목적법인(SPC) 참여사였던 금호산업(주)이 유동성 위기로 법정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해 주관 사업자에서 제외됐다. 〈관련기사 8면〉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를 통과한 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둔 삼호지구 개발계획의 보완, 또는 전면수정이 불가피해져 내년 상반기 착공계획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1일 "삼호지구 SPC인 서남해안관광레저(주)의 주관사업자 금호산업이 SPC 법정자본금을 내지 못함에 따라 다른 주관사를 물색 중이다"라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유동성 위기를 겪는 그룹의 사정 때문에 삼호지구 주관사를 더는 맡기 어렵다는 입장을 최근 전남도에 통보했으며, SPC 내 지분율(33.4%)도 낮춰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호지구 개발계획안은 지난 2월 중도위 심의를 통과했지만 SPC 주관사인 금호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면서 국무총리실 기업도시위원회(기도위) 통과를 위한 450억원 상당의 법정자본금 확보에 실패했다.

금호산업은 삼호지구 SPC 법정자본금 450억원 중 150억원을 부담해야 하며, 나머지를 대림산업과 삼환기업, 한국관광공사, 전남도가 나눠 갖고 있다. 하지만 주관사가 바뀌면 전남도를 제외한 나머지 참여사들의 입장이 어떻게 될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새로운 주관사를 물색하기 위해 3~4개 업체와 접촉 중이지만 삼호지구 최초 주관사였던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컨소시엄이 빠져나간 데 이어 금호산업마저 철수해 경기불황 상태에서 후임 주관사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후임 주관사를 찾더라도 기존 사업계획을 그대로 이어받기 보다는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커 삼호지구 개발계획은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고접수안내
光州日報
구직·문진·모집·초빙·영업·모임·매입·대매
임대·전세·부동산
e-mail : dd8111@hanmail.net
직통 : (062) 227-9600
팩스 : (062) 227-9500

해산 및 채권 신고 공고
사단법인 금륜회는 2006. 1. 27. 사원총회 결의로 해산하고 2006. 2. 9.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2006. 3. 3. 본 법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06. 4. 10. 까지 그 채권액을 본 법인에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 한다는 공고를 광남일보에 게재한바 있으나 당 법인의 사정에 의하여 채권신고를 수리하지 못하였으므로 재차 공고하는 바 본 법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09. 8. 5. 까지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 됩니다.
2009년 6월 2일
광주 북구 두암동 857-13
사단법인 금륜회
광주 서구 내방동 836-4
대표 청산인 이 신 정
연락처 : 262-0470

임야급매
전남 나주 남평읍 노동리 산 72
6800坪 도로접합
➡매가 1억
☎016-249-8656

사/원/모/집

모집부문	모집인원	담당업무	자격요건
식음료파트	남, 여○명	웨이터, 웨이츄리스	신입 및 경력
전기	남○명	전기안전 관리	전기산업 기사 이상
조리사	남○명	레스토랑 조리사	경력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서류심사 합격자 한해서 개별통보)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수처
- 이메일 및 우편접수 가능
- 이메일 : mannerwang@hanmail.net
근무조건
- 4대보험가입, 기숙자제공, 우수사원표창
- 경조금, 의료비지원
기타사항
- 경영지원팀 최관식대리
- 연락처 : 061)320 - 7716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6월 5일 OPEN
PREMIUM BUFFET ELYSIA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아이엘리시아는 두에외식산업과 함께 음식문화를 이끌어 갑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내장객 선착순 1,000분께 6월 12일(금) 기아타이거즈 VS 한화이글스 광주홈경기 입장권을 드립니다.
돌잔치, 세미나, 피로연 각종 모임 예약 접수중 (470석 완비)

평 일	영업시간	성 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00	20,000원	12,000원	8,000원
DINNER	16:00~22:30	25,000원	15,000원	10,000원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 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00	25,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30	30,000원	18,000원	12,000원

★금요일 DINNER는 주말요금으로 적용됩니다.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NAVER Daum 아이엘리시아 검색
예약문의. 062) 671-1199
광주 서구 광천동 49-1(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아이엘리시아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유·스퀘어 문화관 CGV